

제주 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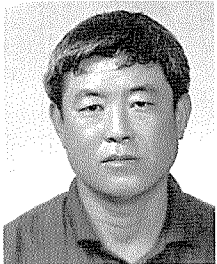
흔히 우리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만 눈여겨 보고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주 지부는 거리상으로 먼 곳에 있다. 그러나 제주 지부는 돈독한 친목과 회원의 이익을 위해 힘쓰며 나름대로의 제과업을 일구고 있기에 더욱 소중한 존재인 동시에 우리 제과업계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예전만 해도 이곳을 찾아가는 여정은 멀고 험난하기만 했다. 마땅한 교통 수단이 없던 옛날이야 말할 나위 없고 기차가 등장한 시대에도 이곳은 긴 시간 육지의 끝에 다다른 후에도 또다시 험한 뱃길의 수고로움을 거쳐야만 하는 땅이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신비의 땅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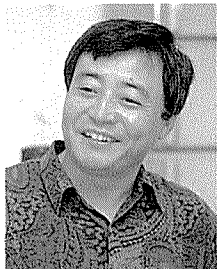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의 제주도는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다. 비행기를 타고 한시간 남짓, 어느새 발아래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여객선 배 뒷머리가 풀어내는 하얀 물보라가 선연하게 눈에 들어올 무렵이면 제

주도는 벌써 거기 있다.

흔히 바람·돌·여자가 많다 하여 삼다도(三多島)라고 불리우는 제주



김영걸 감사



부상근 이사



차동준 이사



조종재 이사



한경도 이사

도는 이국적인 섬이다.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를 비롯해 육지에선 접하기 힘든 식물들,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넓게 펼쳐진 밭과 목초지대에는 말과 소가 뛰놀고 색다른 생활방식, 독특한 말씨 등 어느 것 하나 이국적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국적이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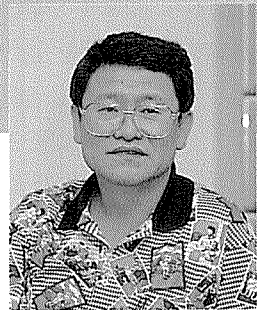
제주 지부는 세분화된 지역 이사 제도를 통해 행정 사항과 의견 수렴의 원활한 전달에 힘쓰는 한편 공동 구매 세미나 개척로 회원의 이익과 기술 발전에 힘쓰고 있다.

따른 것으로 여타 육지와는 다르게 제주도가 물이 귀해 일부 지역에만 도시가 형성돼 있고 나머지는 조그만 촌락마저 이루고 있지 못한 데 연유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면적당 제과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밀집도가 높다. 제주

한라산 정기로 더욱 깊은 단결을

계 있다면 자연 환경을 닮아 인정미 넘치는 마음씨가 살아 숨쉬고, 육지와 다름 없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제과업을 일구는 이들이 있는 곳이 제주도이다.



조용기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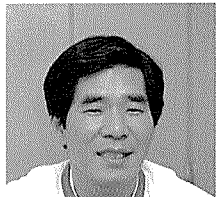
조전호 부지부장

현재 128개 회원 보유, 밀집도 높은 지역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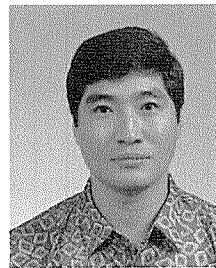
제주 지부(지부장 조용기)가 창립된 것은 1972년 2월. 올해로 2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현재 제주 지부의 회원 수는 총 128개 회원으로 이중 106개 업소가 제주시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 22개 업소가 북제주군에 소재해 있다. 이런 현상은 제주도만의 지역적 특성예

도 제1의 도시로 25만여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제주시에만 100여개 넘는 제과점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소비자의 빵에 대한 인식과 소비가 활발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알려진 대로 제주도는 토양의 특이성으로 옛부터 논 농사 대신 보리, 밀이 주종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제사상에 빵을 제물로 올렸을 만큼 빵이 사람들의 생활과 친숙하다는 설명이다.



김기열 부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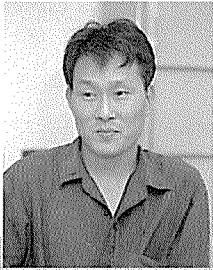
최준연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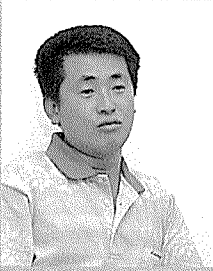
박명식 이사

이 처럼 많은 업소가 있기 때문에 제주 지부는 현재 제주시의 중앙·광양·서문·터미널·인화·용담·신제주·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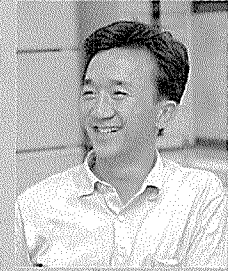
지구와 북제주군을 양분해 북군 동부 분회·북군 서부 분회 이상 11개 지역으로 세분하여 관할하고 있다. 지



조동만 이사



윤석궁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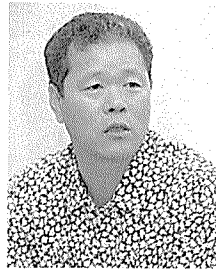


문종철 이사

아울러 지리적 여건상 자칫 낙후하기 쉬운 지역 기술 발전을 위해 제주 지부는 지난해 기술 세미나 실시했으며 또 행사일정 자율지도 실시 결과와 회원 업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의 해결을 위한 내용을 담은 '제주도지회보'를 지난해 6월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기술인 상여금 현실화, 세미나 계획

제주 지부는 올해 하나의 전기를 맞이



임근배 이사



박영수 이사

했다. 조직 체계 확대와 일원화의 일환으로 본회가 실시한 도지회 결성사업에 따라 현재 2개 지부가 있는 제주도지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게 됐다.

제주 지부는 이런 도지회 역할 이외에도 올해 제주 제과업체의 가장 중대하고 당면 과제인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실 제주도는 육지와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어느 지역보다 인력난이 심한 형편이다. 자체에서 육성

되는 기술 인력도 극히 적을 뿐 아니라 육지에서 기술인을 구하려 해도 힘들고 임금도 타 지역보다 더 주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제주 지부는 인력난의 주요 원인인 임금 체계로 인한 이직과 기술인의 불만 해소를 위해 임금을 현실화 하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월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너스가 같은 임금의 기술자라도 업소마다 차이가 있어 이런 불만이 이직으로 이어져 인력난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해 지부 차원에서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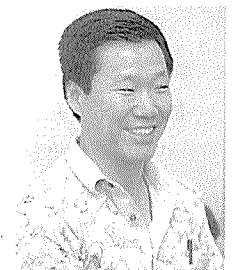
물론 이런 계획은 다른 것과 달리 금전과 직결돼 있고 강제적으로 추진할 사항도 아니며 업주의 적극적인 동조가 있어야 가능한 어려움이 있지만 유난히 인력난이 심한 제주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방법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인식에서이다.

또 제주 지부는 지역 기술 발전을 위해 이전보다 세미나를 많이 개최해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예정이다. 그동안 장소나 시설 면에서 열악한 점이 있었으나 때마침 올해 2월 제주 지역에도 제과기술학원이 생김으로써 인력 양성은 물론 세미나를 통한 기술 발전 도모의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역 내 고아원과 자매 결연을 맺어 적은 힘이 나마 도움을 주는 사랑의 손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흔히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만을 보기 쉽다.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곁에 있는



박정길 총무



표성문 자율지도위원

것을 보기 쉽고 관심 또한 더 가지게 되는 것이 흔한 일이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기 쉬운 점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주 지부는 육지의 관점에서 보면 멀리 있다. 그래서 자칫 잊기 쉽고 관심 또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제주 지부는 자신들의 터전에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제과업을 일구고 있는 당당한 제과업체의 한 부분이기에도 더욱 소중한지 모른다. 또한 돈독한 친목과 회원의 이익을 위한 공동 구매 사업 외에 앞으로 지역내 현안 문제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임금 문제의 획기적 방안 추진과 활발한 세미나 개최, 고아원 자매 결연을 통한 봉사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진일보된 지부의 모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글/박종선)

제주 지부는 올해 동일 임금 수준 기술인의 상여금 차이 문제 해결을 통해 인력난 원인을 해소하는 한편 세미나 및 고아원 자매 결연 등 활발한 활동을 계획 중이다.

역마다 이사를 선임해 적당한 수의 업소를 책임지게 하는 한편 협회의 운영 사항이나 업소에 해당되는 필요 사항을 전달하고 있고 이사를 통해 회원의 문제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 지부는 매월 10일 각 지역 이사가 모이는 이사회를 개최해 지부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회원간의 친목은 전국 제과업 종사자의 공통된 자랑이듯 제주 지부역시 회원의 경조사에 참여해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밖에 회원의 실질적 이익을 위해 공동 구매 사업을 실시해 호두를 비롯 데커레이션 케이크 장식용 '이파리'와 '머랭'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는 것도 제주 지부의 활동 중 하나이다.